

# “싸게 바꿔준다더니”… ‘최적요금제’, 통신사 재량에 달렸다

10월부터 요금제 추천 의무화  
위약금 명분 고가 요금 유에도  
법적 강제력 없어 시정 권고만  
통신사에게 새 마케팅 창구 우려

가게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요금제 정보 제공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추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진다.

26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인 ‘최적요금제’가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KT·SK 텔레콤·LG유플러스는 휴대폰 이용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요금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통신 사업자의 합리적인 상품 추천을 통



서울의 한 대리점 모습.

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특히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선택 약정’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위 요금제 편향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선택 약정은 프리미엄 요금제를 미끼로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면서 가입 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통신비를 매월 25% 할인 해주는 대신 최대 2년 동안 다른 요금제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통신 3사는 최근 6개월 간 소비자가 이용한 음성·문자·데이터의 평균을 분석해 현재 요금제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추천하면 된다. 만약 현재 요금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변동 없이 고지할 수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추천한 요금제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요금제 고지 기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적합성 판단에 대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 기간 원칙은 이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일 부터 계산하고 매 6개월마다 한 달안에 고지해야 한다. 반면 통신사가 선정한 요금제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시정 권고에 그쳤다. 이는 시정 명령보다 강제성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적요금제가 통신사들의 또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나온다. 선택 약정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이 더 높은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에게 조건이 유리할 경우 더 비싼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충돌하는 대목이다.

물론 통신사에 전가되는 비용 부담은 있다. 최적요금제 시행으로 이들이 부담할 직접 비용은 3년 간 437억원으로 추산된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52억원 수준이다. 통신사가 영업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하는 관관비는 매년 2조원에 달한다. 통신사 입장에서 타깃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마케팅의 길이 열린 셈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SK AX, SAP와 AI 기반 ERP 전환 이끈다

전략적 협력 맺고 AI 전환 시장 공략  
ERP 기술과 AX 운영 역량 결합

SK AX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비즈니스 협력을 맺고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 AX는 독일 SAP 본사에서 SAP 오토노머스 스위트 및 비즈니스 AI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SAP가 보유한 기업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SK AX의 산업별 AX 설계·운영 역량의 결합에 에이전트 AI로 최적화하는 것이다. ERP는 기업의 회계·인사·구매·재고·영업 등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SAP는 AI 에이전트의 자율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SAP 오토노머스 스위트’, 기업용 AI 제품군 ‘SAP 비즈니스 AI’, ‘AXgentic와이어 ERP 스위트’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 ‘EAR 옴스’, ‘EAR 스튜디오’ 등도 시스템 운영을 돕거나 설계 및 개발하며 기업의 AX 지원을 돕는다.



김완종 SK AX 사장(오른쪽)과 크리스티안 클라인 SAP CEO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발도르프에 위치한 SAP 본사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 AX

SK AX는 기업 현장의 ERP 운영을 지원하고 AI에 기반해 ERP 전환 돕는 ‘SK AX FDE·AIDE’를 통해 ERP 구축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AXgentic와이어 ERP 스위트는 ERP 전략 수립부터 운영 혁신까지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을 AI로 혁신하는 통합 서비스다. 이 중 AI 제품 ‘마이 파이낸스’는 재무 업무를 자동화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방형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허브에 등록해 전 세계 기업 고객에게 공급한다. ERP 구축·전환 기간 단축과 운영 품질 향

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K AX는 SAP가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업무 환경에 적용하고, SAP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EAC’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완종 SK AX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SK AX와 SK그룹이 먼저 선도적인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선 기자

## LGU+, 가입자망 자율운영 평가표 개발

TM 포럼서 평가 기준 제안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와이파이 등 유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입자망 장애관리 영역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통신산업 협의체 가입자망 장애관리 영역에서 자율 운영 네트워크 수준 평가표 개발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TM 포럼은 전 세계 통신사업자와 장비 제조사가 참여해 통신산업 표준과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이번 평가표는 TM 포럼 공식 절차를 거쳐 승인됐으며 향후 가입자망 분야에서 자율운영 네트워크(AN) 레벨 인증 기준이 활용될 예정이다.

유선 가입자망은 인터넷, IPTV, 와이파이 등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영역이다. 그 동안 해당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식 기준이 전무했다. 때문에 사업자별 운영 수준을 비교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따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자율 운영 네트워크 수준 평가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 기준 마련에 따라 글로벌 통신사들은 가입자망 자율화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장비 제조사도 통신사업자의 요구 수준에 맞춘 솔루션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통신업계가 가입자망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 LG CNS, AI 데이터센터에 액체냉각 적용

네이버클라우드가 운영

LG CNS가 AI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액체 냉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LG CNS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삼성 데이터센터에 ‘직접 칩 냉각(DTC)’ 기술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접 칩 냉각은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관을 GPU 칩에 부착해 열을 흡수하는 액체 냉각 방식이다. 기존 공랭식을 보완하는 기술로, 효율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보급한 엔비디아 초고성능 GPU 베라 루빈에 이번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최근 입주한 네이버클라우드가 운영한다. 앞서 LG CNS는 이시스

자산운용으로부터 삼송 데이터센터 위탁 운영을 맡았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DTC 기술은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공랭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랙당 전력 밀도는 20~30kW 수준인데 반해 고성능 GPU 서버 랙이 요구하는 전력 밀도는 200kW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공기 대비 열전달 효율이 높은 액체로 발열을 관리해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양사는 내년까지 액체냉각 인프라 구축과 실증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총수전 용량 80MW인 삼송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급 AI 팩토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뤼튼테크놀로지스 1000억 시리즈C 유치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뫼튼테크놀로지스는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유치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국내 AI 서비스 스타트업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뫼튼테크놀로지스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2300억원이 됐다.

이번 라운드에는 코아라인벤처스와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고, 기존 투자사인 굿위타캐피탈, 앤들러 글로벌, 우리벤처파트너스, 수이제네리스파트너스, 산업은행, 캡스토폴파트너스 등이 함께 했다.

지난 5월 북미에서 출시한 AI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OOC’가 월매출 100억원을 넘겼으며,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섰다고 밝혔다.

/김보민 수습기자

예산·경제 업무에 생성형 AI 적용

메타빌드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약 49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0일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보유한 행정·정책 문서와 재정·경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편성과 거시경제 분석, 국회 대응 등 주요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기반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기획예산처 내부 데이터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사업의 주요 범위는 ▲행정·정책 문서의 중앙화·이중화 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전용 데이터플랫폼 구축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게 처리하는 지식베이스 구

축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데이터·AI 거버넌스와 보안·권한관리 체계 수립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회 질의서를 분석해 담당 부서 분류와 답변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빌스캔 국회업무 지원 서비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와 예산요구서를 연계해 예산 조화·분석과 유사 사업 탐지를 지원하는 ‘AI 예산 어시스턴트’, 자료 검색·분석과 문서 초안 작성을 돕는 ‘스마트 보고서 서비스’, 국내의 거시경제 데이터를 수집·정제·분석·시각화하는 ‘매크로뷰’다.

메타빌드는 ‘AI 대국민 복지안내실증’,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 ‘복지행정 지역특화 AI 서비스’, ‘지방세 AI 상담서비스’, ‘집현전 AI 국가직식상담서비스’ 등 선행 사업의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